

# 정제능력 100만 B/D시대의 정유산업과 진로



李 福 載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정책연구팀장)

**한국의** 정유산업은 1964년에 원유처리능력 35,000B/D의 정제시설이 울산에서 가동된 이래 지난 4반세기여간에 구조적인 변화와 규모의 확대를 거듭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 하였다. 그 초기의 유치단계에서는 원유도입·단순정제·제품의 국내공급이라는 매우 단순한 공급구조를 취하였으나 이제는 해외개발원유의 도입·중질유분해·제품의 수출입으로 그 정조가 다양화 되었다. 원유 정제능력도 급속한 석유수요 증가와 함께 현저히 증대되어 이제는 1백만 B/D('91년 7월 현재 공칭 1,035백만 B/D)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정유산업의 성장 변화와 더불어 그 주변 환경도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이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 중요한 국내

적인 변화는 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이다. 국내 석유산업에서의 시장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산업의 경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결과 보다 효율적인 석유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산업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아가고 있다. 정유부문 투자에 관한 규제의 완화, 유가자유화범위의 확대, 석유제품 수출입 규제 완화, 그리고 석유제품 유통부문에 대한 규제의 축소가 그 정책변화의 주요내용이며 이는 국내 석유산업 역사에 있어서 실로 획기적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외에서도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의 모색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다. GATT 제 8차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권 구상이 그 중요한 것이다.

내·외적인 이러한 여건변화는 이제 곧 1백만 B/D 시대에 진입한 국내 정유산업에 중대한 시련을 겪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산업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 서어비스에 대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유통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한 수직적인 통합관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 관계를 통하여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보다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품 공급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유산업의 효율적인 경영의 과실(가적인하, 제품품질 및 서어비스의 개선)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이 관계를 통해서이다. 정유회사의 유통부문 진출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주유소가 정유산업의 얼굴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주유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과 품질 및 주유 서어비스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러니와 주유소의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의 경영 다각화를 적극 도모하여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유소 서어비스에 대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소로서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수직적인 통합관계의 구축은 상류부문(국내·외 유전개발)에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하여서도 도모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석유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종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수직적인 통합관계의 구축과 함께 수평적인 연합(horizontal coordination) 관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는 석유제품의 국가간 이동을 통하여 특정지역(국가)에서의 특정 제품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체제이다. 예로서, 동남아시아 산유국에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겨울철 난방용 제품에 대한 공급부족을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진출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기후 및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하여 석유제품 소비구조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국가일수록 좋다. 수평적인 연합관계의 구축은 국내 정유산업이 내수산업의 범주를 벗어나서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亞·太지역의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우리 정유회사들의 상표(pole sign)를 게양한 주유소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결과 석유제품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상품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외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가스산업에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망된다. 油田開發과 함께 가스田開發을 동시에 추진하고 以下 하류부문 공급의 제단계에 있어서 석유사업과 가스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範圍의 經濟(economies of scope)를 도모할 수 있고 이 결과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低公害性의 재생가능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절약기업으로서의 기능수행도 절실히 요망된다.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소요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부산물인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을 위한 투자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에너지 절약기업이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know-how를 개발·축적하고 각 에너지 소비부문에 있어서의 에너지 이용설비 및 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서 이윤을 획득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에너지 절약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용역기업이다. 약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용역기업이다.

국내 정유산업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주변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는 국내산업이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정유산업이 도약하고 새롭게 변모할 수 있으며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주요한 참여자가 될 것이다.